

29일 모비스-글로비스 분할합병 팽팽한 표대결 예고

# “순환출자 해소한다는데…” 국민연금 반대표 던질까

지분 9.82%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찬반결정 민간인 구성 전문위 손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첫 관문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오는 29일 현대 모비스 분할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 낼 것은 다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던 현대차그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총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합병비율 '정당성' 관건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사들의 모비스 분할·합병 반대 사유 중 하나는 현대차그룹이 정한 합병 비율이 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차그룹은 모비스 분할법인과 글로비스의 합병 비율을 0.61 대 1로 정했다.

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들은 모비스 전체 영업이익의 중 분할 모비스의 비중이 70% 이상임에도 그 가치가 과소평가됐다

고 지적한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이번 합병비율이 모비스 주주에게 확실히 이익이라고 반박한다. 기존 모비스 주주는 분할·합병에 따라 글로비스 주식도 함께 받으므로 현재 주가로만 계산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분할·합병 비율이 글로비스 지분이 더 많은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대차그룹은 자본시장 법 등 국내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합병가치 비율은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이익창출능력 및 현금창출능력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며 “시장에서 평가한 양사의 가치비율도 분할합병 비율과 유사하므로 양사 주주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밝혔다.

#### ◆미래 기업가치 엇갈린 분석

현대차그룹이 분할·합병에 따라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모비스의 기대만큼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 분할·합병 형태를 문제 삼으며 개편안에 따른 시너지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그룹은 존속 모비스에 핵심부품 사업 부문과 함께 해외법인을 포함한 투자 부문을 남기기로 했는데, 해외법인과 업무적으로 연결된 모듈·AS부품 사업 부문(신설 모비스)만 떼어내 글로비스에 넘기면 오히려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모비스와 그룹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자동차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모비스는 철저히 미래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춰 세계적인 자동차 분야 원천기술 회사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현대차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약 30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6년 말 완공한 서산 주행시험장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곳은 총 14개의 시험로와 4개의 시험동을 갖추고 자율주행 차를 비롯해 친환경차 등 미래차 핵심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종합 검증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인 키움자산운용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개편안이 “중장

기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현대차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 ◆국민연금 선택 성패 결정

현대모비스 2대 주주(지분 9.82%)인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성패가 결정된다. 주총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하는 현대모비스는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사업분할 안건이 가결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주주 3분의 1 찬성 및 찬성 지분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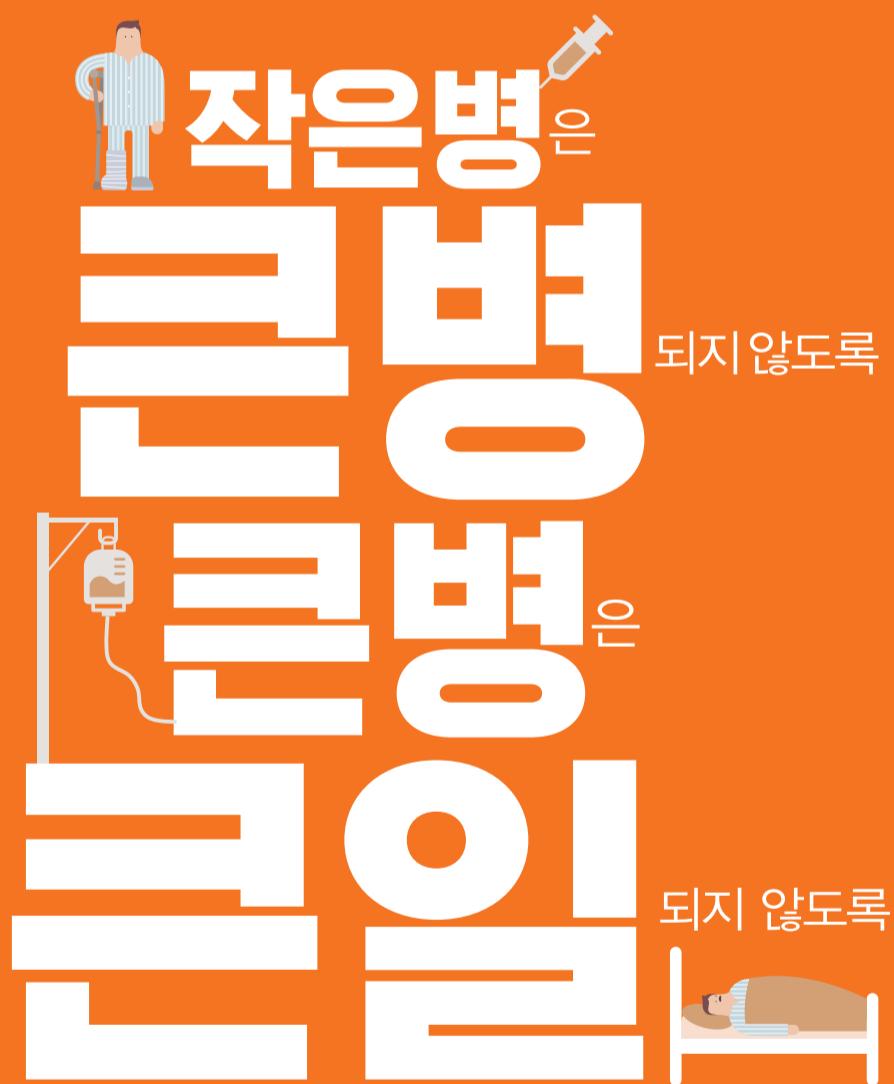
주주총회 찬성률이 8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중 46%에서 5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 우호지분은 30.17% 가량으로 최소 17%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야 한다.

현대모비스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권고를 받아들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현대차그룹은 불리한 상황에서 표 대결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이 가치투자에 초점을 두면 반대의견이 나와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분할 및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겨 귀주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운명이 주로 교수들로 구성된 8명의 전문위원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5057호(2017.11.7)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17-11-02



경증과 중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 한화생명 내가 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 [보증비용 부과형]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규칙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이 정한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1588-6363  
www.hanwhalife.com



LG전자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복궁에서 열리는 ‘세종대왕 문화유산전’에 길이 30m 규모 부스를 마련해 ‘LG 올레드 TV AI 씽큐’ 15대를 설치해 훈민정음, 해시계, 측우기 등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린다. LG전자 모델이 전시부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 LG전자, 세종대왕 업적 올레드TV로 알린다

### 즉위 600주년 기념 문화유산 소개

LG전자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복궁에서 열리는 ‘세종대왕 문화유산전’에 ‘LG 올레드 TV AI 씽큐(ThinQ)’ 15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세종대왕 문화유산전은 문화재청과 LG전자가 세종대왕 즉위(1418년) 6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세종시대의 문화유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LG전자는 경복궁 내 경회루 주변에 길이 약 30m에 달하는 야외 전시부스를 마련해 LG 올레드 TV AI 씽큐를 설치하고, 훈민정음 해례본, 해시계, 측우기, 별자리 등 영상을 보여준다. LG전자는 관람객들이 올레드 TV 화질을 실감할 수 있도록 측우기, 해시계, 흥룡포(용자수가 들어간 임금의 의복) 등을 고해상도 4K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다.

인공지능 기능 체험존도 마련했다. 관

람객들은 “유튜브에서 세종대왕 관련 다큐멘터리 찾아줘”, “유튜브에서 세종대왕 발명품 찾아줘” 등 음성 명령만으로 검색 결과를 TV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을 사랑한 세종대왕’ 코너에서는 뛰어난 음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세종대왕의 재미난 일화를 소개한다. LG전자는 올레드 TV의 입체 음향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가 만드는 정확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대왕은 왜 하늘을 보았나’ 코너에서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올레드 TV 두대를 천정에 이어붙여 별자리 영상을 상영한다.

이외에도 ▲올레드 TV 화면을 통해 세종대왕이 관람객에게 훈민정음을 직접 써주는 모습을 연출한 트리아트 포토존

▲관람객이 흥룡포를 입고 어작(임금이 앓는 의복)에 앉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n@